

# NEAR News

동북아시아를 선도하는 NEAR | NEAR Leading the Era of Northeast Asia  
2012. 5-6

Vol. 45

2012 NEAR 실무자 워크숍



## 이달의 동정

NEAR 활동 | 사무국 소식 | 회원자치단체 동정

## 기획취재

동북아를 결집하는 교류의 디딤돌 "NEAR 실무자워크숍 2012"

## NEAR 회원탐방

몽골 고비알타이 아이막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 NEAR News

「NEAR News」는 회원단체 서로간 소식을 전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NEAR의 공식메신저로 창간되었습니다. NEAR의 활동상황, 회원 단체 동정, 관련 국제 동향, 각종 기고, 공지사항 등의 주요내용을 담아 정기적으로 발간, 회원단체 및 관련기관에 무료 배포되며 NEAR홈페이지에도 게시됩니다. NEAR News는 회원단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소식지이며, NEAR와 동북아시아지역에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NEAR News에 수록하고 싶은 좋은 원고와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NEAR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 Vol. 45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대한민국 경주에서 모여 창설한 국제기구입니다.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연합헌장을 채택하고 경제통상, 교육·문화교류, 환경, 방재, 변경협력, 과학기술, 해양·어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협력 프로젝트를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 몽골의 참여, 신규 자치단체의 회원가입으로 현재 6개국 70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동북아의 대표적인 지방외교협력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NEAR의 문호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지역에 위치하고 연합의 설립취지에 뜻을 같이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연합총회를 거쳐 언제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 NEAR 활동

## 2012 NEAR 실무자워크숍 개최

지난 5월 29일~31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 연합 4개국(중국, 일본, 한국, 몽골), 33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실무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 자치단체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연합의 발전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2012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자 워크숍'을 경주 및 여수에서 개최하였다. (기획취재 12면)

## 오는 7월 ningshu이족자치구에서 NEAR 제9차 총회 개최

NEAR와 제9대 의장단체인 ningshu이족자치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NEAR 제9차 총회가 오는 7월 24~27일까지 ningshu 인촨시 위에하이(悅海)호텔에서 "협력심화로 만들어가는 공동번영"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총회에는 차기 총회 유치신청을 비롯한 사무국 연임 및 장기존치, 특별회비제 등 주요 의제가 상정될 예정이며 특히 행사 기간 동안 ningshu이족자치구 인민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동북아원예산업세미나를 비롯한 식수행사, 예술 공연, 현지시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계획되어 있어 한층 더 풍부한 내용으로 NEAR회원자치단체 대표단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12 NEAR 제9차 총회 주요일정(안)

일 자	주 요 일 정	장 소	
7. 24(화)	전일	등록 및 각 국 VIP회견	위에하이 호텔
	18:30~20:00	환영만찬	
7. 25(수)	09:00~09:50	<b>개막식(닝샤 리루이 부주석 진행)</b> · ning샤 왕정웨이 주석 환영사 · NEAR 김재효 사무총장 축사 · 단체촬영	위에하이 호텔
	10:00~12:00	<b>NEAR 활동 보고</b> · 제9대 의장 활동 보고(닝샤) · 사무국 주요활동 및 분과위 활동 보고(사무국) <b>NEAR 회원자치단체대표 발표</b>	
	12:00~13:30	오찬 및 자유시간	
	13:30~18:00	<b>제9차 총회 의제 심의</b> · 차기 의장 자치단체 신청(전라남도) · 사무국 연임 및 장기존속 신청(경상북도) · 특별회비제 의제(사무국) · NEAR청년 인턴십 제안(사무국) · 자유토론	
		18:30~20:00	
	20:00~21:00	문화공연 관람	
7. 26(목)	09:00~09:30	<b>동북아원예산업세미나 개막식 참석</b>	위에하이 호텔
	10:00~12:00	<b>식수행사</b>	미정
	12:00~13:00	오찬	
	13:00~18:00	팸투어 1) 중화후이상(回鄉) 문화원 → 샤후(沙湖) 2) 중화후이상(回鄉) 문화원 → 중화황하단	
7. 27(금)	전일	대표단 귀국	

※ 위 일정은 현지사정에 의해 임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NEAR 제9차 총회 홍보단 동북아 각국 순방

NEAR사무국과 ningshu이족자치구 대표단 연합으로 구성된 총회 홍보단은 4월 16일 한국 전라남도 배용태 행정부지사 예방을 시작으로 한국, 일본, 몽골지역의 회원자치단체를 방문하는 2주간의 일정이 관계 회원자치단체의 협조 하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번 총회의 실질적인 준비 부서인 ningshu이족자치구 외사관공실의 탄자오화(譚朝華) 비서장은 왕정웨이(王正偉) 주석이 서명한 정식 초청장을 회원자치단체에 전달하며 현재까지의 총회 준비상황 및 총회기간 동안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총회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방문한 회원자치단체로는 한국 전라남도, 경기도, 경상남도, 일본 효고현, 시마네현, 돗토리현,

몽골 바양홍고르아이막, 올랑바타르시, 우부르항가이아이막이 있으며, 부지사급 이상의 총회 참석 요청에 대부분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주몽골중국대사관 및 일본 CLAIR 본부를 방문, 주재지역의 회원자치단체들이 ning샤 총회에 참석

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각 기관은 적극적인 협조의사를 표명하였다. 그 외, ningshu이족자치구 인민정부는 6월 3일 두 번째 총회 홍보단을 구성하여 연해변경주를 비롯한 러시아 관계기관을 방문, 제9차 총회에 정중히 초청할 계획이다.



일본 효고현 가나자와 가즈오(좌측 사진 좌측에서 3번째) 부지사와 우부르항가이아이막 터그터흐수름(우측 사진 중앙) 지사를 예방한 총회 홍보단

### 제2회 광물개발·조정 분과위원회 개최

EAR 광물개발·조정 분과위원회가 오는 8월 1일~3일 광산업 및 관련산업 투자에 관한 법제, 지역 소개, 광물 생산지의 전망, 광산업체 대표들 간 파트너십 구축을 주제로 러시아연방 마가단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마가단주는 NEAR 회원지방의 경제발전 전략 및 광산업 관련 부서, 광산업체 및 투자회사 대표들을 초청한다.

**담당 연락처 :**  
**마가단주 행정부 경제위원회**  
**빈테르 발레리야 보리소브나 (Vinter Valeriya Borisovna) - 마가단주 경제위원회 부의장, 생산노동력 개발 및 투자정책국 국장**  
 • 전화 : +7-4132-629308  
 • 팩스 : +7-4132-629308  
 • e-mail : valery@regadm.magadan.ru

**포노마렌코 이반 이바노비치 NEAR 러시아 파견직원 (마가단주)**  
 • 전화 : +82-54-223-2325  
 • 팩스 : +82-54-223-2309  
 • e-mail : ii.ponomarenko@gmail.com

**NEAR 사무국**

유아람 (한국어, 영어)	전화 : +82-54-223-2318 E-mail : aram_yoo@hotmail.com
이혜정 (중국어)	전화 : +82-54-223-2320 E-mail : cham0284@gmail.com
최수규 (일본어)	전화 : +82-54-223-2317 E-mail : s.g-c@hotmail.com
히식 자르갈 (몽골어)	전화 : +82-54-223-2384 E-mail : hi_hishgee@yahoo.com
김상현 (러시아어)	전화 : +82-54-223-2319 E-mail : ruskii@hanmail.net

### 제1회 에너지 기후변화분과위원회 8월 28일~30일 대구광역시에서 개최

오는 8월 28일~30일 제1회 에너지 기후변화분과위원회가 “에너지로 하나되는 동북아”를 주제로 한국 대구광역시에서 개최된다. 이번 분과위원회는 국제 LED-Display 박람회와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회원단체간 에너지 기후변화 협력증진과 더불어 자치단체간 정책정보 및 비즈니스 교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에너지로 하나되는 동북아 구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인구 250만, 대한민국 3대 도시인 대구광역시는 대한민국 최초로 솔라시티를 표방하며 녹색도시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3년에는 에너지 분야의 올림픽으로 일컬어지는 세계에너지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 기 간 : 8. 28(화) ~ 8. 30(목)
- 장 소 : 엑스코
-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1일차(8. 28)	입국, 호텔 체크인, 환영리셉션
2일차(8. 29)	분과위원회 회의 (회의주제 : <b>에너지로 하나 되는 동북아</b> )
3일차(8. 30)	산업시찰 및 대구 관광투어 : 엑스코 그린에너지 시설, 신천태양광 발전소, 대성그룹 태양열 발전소 등
4일차(8. 31)	출국 및 환송

※ 세부일정은 추후 통보

### 2012 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 시마네현에서 개최

#### ‘동북아시아 교류의 날개 in 시마네’

오는 8월 3일~8일 동북아시아의 청년들이 시마네현에 모여 함께 생활하는 합숙형 교류프로그램인 ‘동북아시아 교류의 날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본 행사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홈스테이를 하면서 환경 복지에 관련한 의견교환을 하고 전통문화체험 및 각국 문화소개를 하게 된다.

#### 2012 ‘동북아시아국제문화팔레트’

시마네현은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의 문화교류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북아시아지역의 전통문화 예능단을 시마네현에 초청하여 공연 및 교류활동을 펼치고 동북아시아지역의 상호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동북아시아 국제문화팔레트’를 2012년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중-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시마네현과 우호교류합의서를 교환한 중국 지린성 예능공연단을 초청, 공연 및 시민교류사업을 통한 중일의 유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사무국 소식

### 2012년 해외공무원 사무국 파견근무자 확정

국 가	자 치 단 체	성 명
중 국	헤이룽장성	장보양
	닝샤 후이족 자치구	마이샤(2012년 10월까지 근무)
일 본	효고현	이케가미 타카히사
몽 골	바양홍고르 아이막	다와삼보 에르덴빌레그
러시아	마가단주	이반 이바노비치 포노마렌코

사무국에서는 각 회원단체로부터 사무국에 파견되어 근무할 국가별 파견직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회원 단체에 통보하였다. 각국 파견직원은 2012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1년간 사무국에서 근무하게 되며, 국가별 파견근무자는 다음과 같다.



(왼쪽부터) 장보양, 마이샤(중국), 이케가미 타카히사(일본), 다와삼보 에르덴빌레그(몽골), 이반 포노마렌코(러시아)

**NEAR 김재호 사무총장 하바롭스크변경주 쉬포르트 지사 면담**

지난 5월 30일 김재호 사무총장이 한국 경남 창원에서 쉬포르트 하바롭스크변경주 지사와 면담했다. 본다렌코 주한 러시아무역대표부 대표와 디아노프 하바롭스크변경주 국제관계국 국장이 동석한 가운데 김사무총장은 오는 7월 24일~27일 중국 닝샤후이족 자치구에서 개최되는 제9차 NEAR총회에 쉬포르트 지사를 초청했다. 쉬포르트 지사는 일정관계로 직접 참석은 힘들지만 하바롭스크변경주 대표 사절단을 구성하는 등 앞으로 NEAR활동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화답했다.



(왼쪽부터) 본다렌코 무역대표부 대표, 쉬포르트 하바롭스크 변경주 주지사, 김재호 사무총장

**회원자치단체 동정**

**허난성 - 중국**

**2012년 허난성 사기업 채용설명회 개최**

5월 8일 허난성 인력자원사회보장청, 교육청, 노동조합총연합회, 상공업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사기업(私企業) 채용설명회 주간” 개막 행사가 정저우시 인력자원센터에서 개최되었다. 허난성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자 허난성상공업연합회 의장인 량징(梁靜) 여사와 허난성 인력자원사회보장청 왕진파(王金法) 부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허난성 전체 18개 시와 10개 현에서 1주일간 개최될 예정이며, “사기업 취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 아래 주로 대학졸업생 및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출신 실업자들의 취업 활동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2 허난성 사기업 채용설명회 개막행사

**헤이룽장성 - 중국**

**제23회 하얼빈무역상담회 오는 6월 15일 개막**

제23회 하얼빈국제경제무역상담회가 오는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하얼빈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하얼빈무역상담회는 중국중앙정부가 인정한 국가적 행사이자, 대규모 국제박람회로 중국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헤이룽장성인민정부, 저장성(浙江省)인민정부, 하얼빈시인민정부가 공

동주최하며 러시아경제발전부, 일본국제무역촉진협회 등 10여 개의 해외 정부부서와 무역촉진기구가 후원한다. 1990년부터 매년 성공리에 개최된 하얼빈무역상담회는 22번 개최되는 동안 80개 국가 및 지역에서 온 해외 상인 약 180만 명이 박람회에 참가하여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계약금액은 총 천억 달러가 넘는다.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3회 중국하얼빈국제경제무역상담회 기자회견

**후베이성 - 중국**

**2012년 5월 20일~27일 토마스&우버컵 후베이성 우한에서 개최**

2011년 6월 3일 오후 2시,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은 중국 칭다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후베이성 우한시를 2012 토마스컵&우버컵 개최지로 선



BWF 강영중 회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장진 부국장(왼쪽 끝), 후베이성 우한시는 2012 토마스컵&우버컵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포했다. 이는 10년 만에 다시 중국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후베이성 체육국장 장진(章進) 부국장은 ‘토마스컵(세계남자단체배드민턴선수권대회)·우버컵(세계여자단체배드민턴선수권대회)은 테니스계의 데이비스컵 대회와 마찬가지로 세계 최고 권위의 배드민턴 대회’라며 ‘우한이 2012년 행사개최지로 선정되는 것은 우리의 꿈이었다. 이러한 세계 최고 권위의 행사를 개최 통해 우한시가 널리 홍보되고 후베이성 체육계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야마가타 - 일본

### 한국의 야마가타 응원단 확대 중!

2010년 10월, 야마가타현 서울사무소가 중심이 되어, ‘야마가타홍화<sup>※1</sup>(紅花)회’가 설립되었다. 이 모임의 회원자격은 ‘야마가타현 출신자 및 야마가타와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 출신지나 국적을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외 현민회와는 차이가 있다.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모임이지만 벌써 3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51명(일본인 33명, 한국인 18명)이다. 연 4회 정례모임(석식모임)이 개최되고 있고 일본에 돌아간 회원들이 도쿄지부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한국인 회원의 출석률도 높은 편이지만 정례모임의 대화는 대부분 일본어로 이루어 지고 있다. 국적, 연령, 직업 등을 초월한 ‘야마가타 인맥’이 더욱 확대되어 앞으로의 한일교류의 발전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sup>※1</sup>홍화 : 야마가타지방에 널리 재배되고 있어 야마가타의 현화로 지정됨.



야마가타홍화회 정례모임(2012년 4월 26일)

## 후쿠이현 - 일본

###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유럽으로의 여행 ‘초루가시 - 블라디보스톡 크루즈’

후쿠이현 초루가항은 올해로 철도개설 130주년, 블라디보스톡 정기항로의 취항 110주년, 또한 ‘유럽-아시아국제연락열차’<sup>※1</sup> 운행 100주년 등 겹경사가 이어지는 해이다.

이를 계기로 후쿠이현은 연중 ‘철도와 항구의 고장 초루가’를 홍보할 계획이며, 그 중에서도 7월 25일 초루가 -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크루즈

선 ‘퍼시픽 비너스(Pacific Venus)’의 취항이 주목할 만하다.

선내에서는 이른바 ‘생명의 비자’를 소지했던 유대인난민들이 상륙한 ‘인도(人道)의 항구’ 츠루가의 역사와 유럽-아시아연락철도에 관한 일화를 소개하고 코시히카리<sup>※2</sup>의 발상지인 후쿠이현 산 식재료를 사용한 메뉴를 제공할 예정이다.

후쿠이현을 방문하여 큰 감동이 있는 여행을 체험하기 바란다.

※ <sup>※1</sup>유럽-아시아국제연락열차 : 도쿄(철도)~츠루가(선박)~블라디보스톡(철도)~유럽을 티켓 한 장으로 여행했던 철도-선박복합항로, 1912년~1940년까지 운행되었다

※ <sup>※2</sup>코시히카리 : 일본산 명품 쌀 브랜드



7월 25일 취항하는 초루가-블라디보스톡 크루즈선 ‘퍼시픽 비너스(Pacific Venus)’

## 시마네현 - 일본

### ‘2012 시마네 신화박람회’ 개최

일본 최고의 역사서 ‘고사기’에 기록된 많은 신화 가운데 이즈모(시마네 동부지역) 신화가 상권의 3분의 1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고대에 시마네 지방에 큰 세력이나 문화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는 이 ‘고사기’가 편찬된 지 1300주년이 되는 해로 시마네현에서는 ‘신들의 고장 시마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행사인 ‘시마네신화박람회’가 올 7월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이즈모신사에 위치한 ‘고대이즈모역사박물관, 앞에 특별 행사장을 설치하고 신화영화관, 전통예능 및 현민들의 공연 등이 상연되는 ‘시마네 매력홍보무대’, 향토요리와 특산품을 판매 코너 등을 설치한다.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시마네현내 각지를 둘러보고 지역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마네현 내 각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합심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7월 21일~11월 11일 시마네현에서 개최되는 ‘2012 시마네 신화박람회’

## 충청북도 - 한국

### 제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오는 8월 9일~15일 부분경쟁 국제영화제, 자연과 함께 하는 휴양영화제인 제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충북 제천에서 개최된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110여 편, 130여 회의 영화상영과 80여 회의 음악공연이 어우러진 국내 유일, 아시아 최초의 음악 전문 영화제이기도 하다. '영화와 음악 그리고 자연의 조화'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세대와 취향의 벽을 뛰어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제로서 매년 135,000여 명의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또한 '음악영화제'라는 차별성을 가지고 동시대 음악영화의 흐름을 짚어보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음악 세계를 주제로 한 음악영화를 소개한다. '월 썸머 나잇(One Summer Night)', 'JIMFF 라이브 스테이지(JIMFF Live Stage)' 등의 야외음악 공연 프로그램은 작지만 아름다운 도시 제천이 선물하는 매력적인 풍경과 수려한 음악 선율이 어우러져 잊지 못할 여름을 선사할 것이다.



제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공식 포스터(조남룡 作):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펼쳐질 청풍호에 뛰어드는 젊음과 환희의 에너지'를 통해 아시아 유일의 음악영화제로서 변화와 도전에 주저하지 않는 영화제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 경상북도 - 한국

### 경북, 맞춤형 관광마케팅으로 중국인 관광객 2천500명 유치

경상북도가 맞춤형 전략 마케팅으로 중국인 관광객 2천500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경북관광홍보단은 지난 4월 29일부터 4박5일간 중국 길림성, 요녕성에서 경북관광홍보담당회를 열고 중국인의 관광 패턴에 맞춘 전략상품을 선보였다. 또 지역별 대표 여행사를 찾아 경북관광 세일즈 콜을 진행했다. 홍보단은 중국인이 즐겨 찾는 경주, 문경, 안동, 영주를 중심으로 '수학여행 상품', '전통문화체험상품', '세계유산탐방', '한류드림 페스티벌', '축제 연계상품' 등 추억과 즐거움을 선사할 맞춤형 전략상품을 소개했다.

그 결과 수학여행단 1천명, 중국유학생 학부모 경북방문단 500명,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문화교류행사 관광객 1천명 등 2천500명의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확보했다. 경북은 앞으로도 국가별 선호 관광상품을 준비, 현지에서 폭넓은 교류관계를 구축하고 경북관광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금년 외국인관광객 1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현지에서 진행된 경북관광홍보설명회

## 울란바타르시 - 몽골

### '제3회 마두금 국제 대회' 개최

몽골 정부의 '마두금 보편화' 정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제3회 마두금 국제 대회'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울란바타르시에서 열렸다. 올해 본 대회에는 몽골, 러시아 부리야트 공화국, 중국, 내몽골, 일본, 독

일, 미국, 한국 등 국가에서 200여 명의 마두금 연주자, 연구원, 학자 및 마두금 제작진이 참여하였다. 마두금을 통해 몽골의 문화 예술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외국인 마두금 연주자 및 학자의 활동을 확대하여 연구 및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는 일본과 중국에서 역대 최대 인원(국가 당 30명)이 참석하여 마두금 연주를 선보였다. 특히, 일본 팀은 몽골과 일본 수교 40주년을 기념하여 연주회 수준의 공연을 펼쳤다. 그 외 미국, 한국, 독일,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마두금 아마추어들이 참가하여 실력을 선보이기도 했다. 마두금은 2004년 ‘유네스코 무형 문화재’에 등재되었다.



제3회 마두금 국제 대회

## 바양흥고르아이막 - 몽골

### 바양흥고르아이막과 닝샤후이자치구 우호교류 협약 체결

지난 4월 22일~26일 제9차 NEAR 총회 홍보를 위해 몽골을 방문한 중국 닝샤 후이족 자치구 대표단이 24일 바양흥고르아이막 아마르사나 바양흥고르 지사와 면담하고 닝샤-바양흥고르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하였다. 양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위치와 비슷한 기후조건 등 공통점이 많아 향후 활발한 교류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닝샤후이족 자치구와 바양흥고르 아이막 우호교류의향서 체결 : (왼쪽부터 탄자오화 닝샤 대외우호협회비서장과 아마르사나 바양흥고르 지사)

## 하바롭스크 사절단 방한 - 러시아

### 사절단이 경제통상, 투자 컨퍼런스 개최를 위해 방한

5월 29일 ~ 6월 1일 바체슬라브 쉬포르트 하바롭스크변경주 주지사를 비롯한 행정부 대표들과 12개 러시아 기업으로 구성된 40여 명의 사절단이 경제통상, 투자 컨퍼런스 개최를 위해 방한했다. 5월 29일 하바롭스크 주정부 주최, 주한러시아무역대표부, 한러비즈니스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된 투자유치설명회 본 행사는 서울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전일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음 날 사절단은 개별일정에 따라 부산과 경남 창원을 방문하고 6월 1일 러시아로 출국했다.



바체슬라브 쉬포르트 하바롭스크 변경주 주지사



| 회원단체 행사일정 |

# July

2012. 7.

Sunday

8

Monday

9

- 회원자치단체 : 경상남도(한)
- 행사명 : 2012 제4차 동아시아 해양회의
- 기 간 : 7.9~7.13
- 장 소 : 창원시 창원컨벤션 센터
- 연락처 : 서울시 코엑스 컨벤션팀  
T. +82-2-6000-8134  
F. +82-2-6000-8190
- E-mail : info@eascongresskorea.or
- Website : http://eascongresskorea.org/eng/

Tuesday

10



15

- 회원자치단체 : 사하공화국(아쿠치아) (러)
- 행사명 : 제2회 올론호(Olonho) 지역 유네스코지정 걸작 대전
- 기 간 : 7.4~7.16
- 장 소 : 아쿠초크시
- 연락처 : 사하공화국 문화부  
T. +7-4112-42-06-08  
F. +7-4112-42-11-63
- E-mail : mincult@sakha.gov.ru

17



22



24

- 회원자치단체 : 전라남도(한)
- 행사명 : 제12회 여수국제청소년축제
- 기 간 : 7.24~7.29
- 장 소 : 여수시
- 연락처 : 여수시 관광과  
+82-61-690-2042
- E-mail : mkhk@kultura27.ru
- Website : http://festival.yeosu.go.kr/home/festival

# August

2012. 8.

5

- 회원자치단체 : 투브아이막(몽)
- 행사명 : 전통가무페스티벌
- 기 간 : 8.5
- 장 소 : 투브아이막
- 연락처 : 투브아이막 행정국  
T. +976-1272-23711

6



7

26

- 회원자치단체 : 대구광역시(한)
- 행사명 : 국제정보디스플레이 학술대회
- 기 간 : 8.27~8.31
- 장 소 : 대구 EXCO
- 연락처 : IMID 2012 사무국  
T. +82-2-563-7992  
F. +82-2-556-3396
- Website : http://www.imid.or.kr/

27

28



Wednesday

11

Thursday

12

Friday

13

Saturday

14

- 회원자치단체 : 우부르헝가이 아이막(몽)
- 행사명 : **야크축제/양염소축제/말축제**
- 기 간 : 7.13/7.18/8.9
- 장 소 : 바트울지쑤/주웅비양울람쑤/울지트쑤
- 연락처 : 우부르헝가이아이막 행정국  
T. +976-1322-22360
- E-mail : magnai0612@yahoo.com
- Website : http://bishirtugei.over.blog.com



18

- 회원자치단체 : 알타이변경주(러)
- 행사명 : **러시아 페스티벌 "알타이 숙련의 날"**
- 기 간 : 7.19~7.22
- 장 소 : 알타이변경주
- 연락처 : 알타이변경주 문화  
T. +7-3852-24-96-96  
F. +7-3852-24-89-43
- E-mail : komcul@tt.ru
- Website : http://www.culture22.ru



21

25



- 회원자치단체 : 경상북도(한)
- 행사명 : **포항국제불빛축제**
- 기 간 : 7.27~8.4
- 장 소 : 포항북부해수욕장
- 연락처 : 포항시 관광진흥과  
T. +82-54-270-2253
- Website : http://www.poscofs.com

- 회원자치단체 : 전라남도(한)
- 행사명 : **제40회 강진청자축제**
- 기 간 : 7.28~8.5
- 장 소 : 강진군 대구면 청자도요지
- 연락처 : 강진군 축제팀  
T. +82-61-430-3193
- Website : http://www.gangjinfes.or.kr/

28

1

- 회원자치단체 : 부산광역시(한)
- 행사명 : **제17회 바다축제**
- 기 간 : 8.1~8.9
- 장 소 : 해운대 해수욕장
- 연락처 :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  
T. +82-51-888-3395  
F. +82-51-501-6052
- Website : http://www.festival.busan.kr/ENG



- 회원자치단체 : 토아마현(일)
- 행사명 : **2012 토아마세계어린이무대예술제**
- 기 간 : 7.31~8.5
- 장 소 : 토아마시
- 연락처 : 생활환경문화부 문화진흥과  
+81-76-444-4574  
+81-76-444-4438



4

8



- 회원자치단체 : 충청북도(한)
- 행사명 : **제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 기 간 : 8.9~8.15
- 장 소 : 제천시
- 연락처 : 서울사무국  
T. +82-2-925-2242  
F. +82-2-925-2243
- Website : http://www.jimif.org

- 회원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한)
- 행사명 : **2012 제주국제관광축제**
- 기 간 : 8.10~8.18
- 장 소 : 제주도 일원
- 연락처 : 제주국제관광축제조직위원회  
T. +82-64-722-8704  
F. +82-64-753-2208

- 회원자치단체 : 산둥성(중)
- 행사명 : **제22회 칭다오 국제맥주페스티벌**
- 기 간 : 8.11~8.26
- 장 소 : 칭다오시
- 연락처 : +86-532-85928906
- Website : http://www.qdbeer.cn

11

29



30

31

동북아를 결집하는 교류의 디딤돌

“NEAR 실무자 워크숍 2012”



2006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봄이 되면 NEAR 업무를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5개국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NEAR 실무자 워크숍이 열린다.

올해는 중국 3단체, 일본 10단체, 한국 9단체, 몽골 11단체 등 총 4개국 33개 단체 80여 명이 참석,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 동안 동북아시아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 간 결속을 강화하고 교류의 방향성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공익재단법인 환동해(일본해)경제연구소(ERINA)의 스즈키 신사쿠 연구원을 초청, 특강을 통해 일본 지자체 외교의 모범교류사례를 살펴보고, 동북아시아의 발전을 위한 지방간 교류가 지향해야 할 방향 및 NEAR의 역할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와 방안들을 외부의 시각에서 재조명하였다.

NEAR회원단체의 교류 사례 발표 및 현안에 대한 토론 등 이어진 회의 일정을 마친 참석자들은 회원단체탐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경주에서 전라남도로 이동,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관람하였다.

첫째 날

새롭고도 익숙한 풍경과 사람들

각국 지방단체 실무자들이 하나 둘 대한민국 경주에 도착. 대부분의 담당자들이 바뀐 탓인지 첫 만남에 다소 어색함이 감도는 듯 했지만, “내 나라에 있는 것처럼 익숙하게 느껴지는 경주의 풍경과 자연, 사람들의 얼굴”이라는 말에 공감하며 건배잔을 기울이는 사이 이내 만찬장의 분위기는 새로운 기대감으로 고조되었다.



① 김재호 사무총장의 환영사에 귀 기울이는 각국 대표단의 모습  
 ② “덕도이!” 김재호 사무총장과 마그마르 자르갈사이항 오피스아임 대표. (‘덕도이’는 몽골어로 ‘건배’)  
 ③ ~ ④ 첫째 날 환영만찬 후 참석자들을 위해 마련된 경주시내 투어에 참여한 몽골대표단(경주 안압지)

둘째 날

실무자 워크숍 회의

회의 당일 특별강연에서 환동해(일본해) 경제연구소(ERINA)의 스즈키 신사쿠 특별연구원은 36년간 니가타 시청 및 국제정책·경제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인적 네트워크 강화 및 집중적인 경제교류사업 추진을 통한 자매도시와의 정기항로 및 항공 개설, 시민 국제화, 재외공관 유치 등 니가타시의 국제교류전략과 성과를 공유하였다. 또한 향후 동북아 자치단체들 간 교류의 심화발전을 위한 국제적 인재 육성과 국제물류 인프라 정비, 기업정보의 네트워크화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아울러 "동북아시아의 국제협력에 있어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NEAR가 회원들의 의견을 기본이념의 방향으로 결집시켜 보다 구체적인 사업을 전개한다면 정치·경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회의결과를 중앙 정부에 설명할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외부에 개방된 회의 개최, 자문조직의 설치, 동북아의 중요문제를 분과위원회의 주제로 선정함으로써 지방간 논의 심화, 민간단체, 연구기관, 기업 등과의 공동사업을 통한 NEAR 사업활동의 대외홍보 강화 등 외부전문가의 시각으로 NEAR의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제안을 하였다.

이어진 교류수범사례 발표에서 대구광역시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하여 추진해 온 다양한 인

적교류 및 인턴십 사업을, 효고현은 국제회의 개최를 통한 국제교류 확대, 전라남도에는 미국 자매도시와 '영어체험캠프' 운영을 통한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영어교육 개선, 옅스아이막은 축제개최를 통한 변경지역 민간교류 강화 사례 등을 공유하였다.

마지막으로 제9차 NEAR총회 의장단체인 닝샤후이족 자치구에서 총회 준비현황을 보고하였으며, 사무국에서는 동북아 지방간 구체적 교류사업으로서 추진 준비 중인 NEAR청년 해외인턴교류 프로그램 'PioNEAR(Professional Internship Program of NEAR)'에 대한 소개, 토의로 실무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① 환동해(일본해) 경제연구소(ERINA)의 스즈키 신사쿠 특별연구원이 '동북아시아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간 교류'에 대하여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② 중국 허난성 정광민 외사판공실 처장  
 ③ 본 효고현의 모리야스 히데카즈 국제교류과 과장이 국제회의의 개최를 통한 국제교류 확대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④ 대구광역시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윤소영 주무관  
 ⑤ 'PioNEAR' NEAR 청년인턴교류프로그램에 대해 부연설명하는 김종학 NEAR사무처

셋째 날

전라남도 '2012 여수세계박람회' 탐방

5월 31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 도착한 워크숍 참가자들은 우선 한국관을 둘러보고 한국인의 바다정신과 해양역량을 느낄 수 있는 영상과 관람객이 참가하는 전통공연이 접목된 환상적인 무대를 관람했다. 또한 주제관에서는 듀공이라는 희귀동물을 주인공으로 한 퍼포먼스와 다큐멘터리영상 등을 관람하고 해양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느끼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 국제관으로 이동한 일행은 각자 관심 있는 국가의 전시관을 자유롭게 관람하는 것으로 여수 일정을 마무리했다.



① 2012 여수세계박람회 전경  
 ② "회원탐방" 프로그램 일환으로 전라남도의 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한 한국 및 일본 대표단

# 고비알타이 아이막

몽골



**개요** 고비알타이 아이막은 1940년 설립되었으며, 면적은 141,400 km<sup>2</sup>로 몽골에서 2번째로 넓은 지방이다. 수도인 알타이 시는 울란바타르 시에서 1,001km 떨어져 있다. 인구는 56,000명이며 18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뉜다.

**자연과 지리** 고비알타이 아이막은 몽골 남서부에 위치하며 바양홍고르, 자브항, 호브드 아이막과 접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360km에 걸쳐 중국

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몽골의 33개 최대 유명 고비 사막 중 10개가 고비알타이에 위치해 있으며, 산맥, 스텝초원, 고비 사막 등 광활하고 아름다운 몽골의 3대 주요 기후지대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지역이다.

해발고도 2,181m에 위치한 알타이 시는 몽골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수도다. 아이막의 최고점인 수타이 산의 해발고도는 4,090m이며, 최저점인 노민사막은 382m이다. 한겨울과 한여

름 최저 및 최고기온은 각각 -16~-24℃, +20~+30℃이며, 연강수량은 48~110mm다.

**사회와 경제** 인구의 대부분은 0~35세이며,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다. 통계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비슷하여 여성이 인구의 50.8%를 차지한다. 주요 산업은 축산업과 농업이며 최근 들어 관광이 발전하고 있다. 총 160만 두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으며, 그 중 낙타의 수





- ① 알타이시 막사르 정처브 동상
- ② 발포 샤라브 작 '몽골의 하루' 중
- ③ 예찌 하이르항 산
- ④ 9개 구멍 바위
- ⑤ 라밍 아고이 동굴
- ⑥ 고비알타이 아이막의 대표 브랜드인 'Biger' 위스키와 샴페인, 와인
- ⑦ 예찌 하이르항 산의 관광코스

는 25,200두로, 몽골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금, 구리, 몰리브덴, 알루미늄, 석탄 등 다양한 광물을 생산하고 있다.

**국립자연보호구역** 고비알타이에는 1975년부터 헌법에 의해 보존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립자연보호구역이 2개 있다. 모두 고비사막지역에 속하며 총 98,266km<sup>2</sup>로 고비알타이 면적의 32%를 차지한다. 이 곳에 가면 많은 고비곰, 눈표범, 아시아 야생당나귀, 산염소, 야생쌍봉낙타, 알타이 눈수탉 등 다양한 희귀동물과 조류를 직접 볼 수 있다.

**고비 알타이의 대표적 인물** 고비알타이에는 국가발전에 기여를 한 인물들이 많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현대미술의 창시자 발포 샤라브, 몽골의 용사 막사르 장처브 등을 꼽을 수 있다.

**몽골의 용사 막사르 장처브** 1945년 세계2차 대전 시 여러 차례 총에 맞으면서도 불굴의 의지로 목적지에 도착, 끊어진 통신선을 연결하고 22살이란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그를 영원이 기억하기 위한 기념 동상이 알타이시에 세워져 있다.

**발포 샤라브** ②의 그림은 현대 몽골미술의 창시자이자 엽기적 화가로 알려진 발포 샤라브의 최대 걸작 '몽골의 하루'다. 초원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생활상이 궁금했지만 한시도 궁을 비울 수 없었던 빅드왕(1869~1924)이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는 궁정화가였던 샤라브에게 민초의 생활상을 그리도록 명했고, 샤라브는 이를 한 폭의 그림에 담았다. '몽골의 하루'는 초원에서 유목

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절대 그릴 수 없는 몽골만의 고유한 독창성이 넘치는 작품으로, 몽골인의 의식주, 관혼상제, 생로병사, 희로애락과 종교, 샤머니즘 등 유목민의 일상이 가감없이 묘사되어 있다. 현재 '몽골의 하루'는 울란바타르시 '자느바자르' 예술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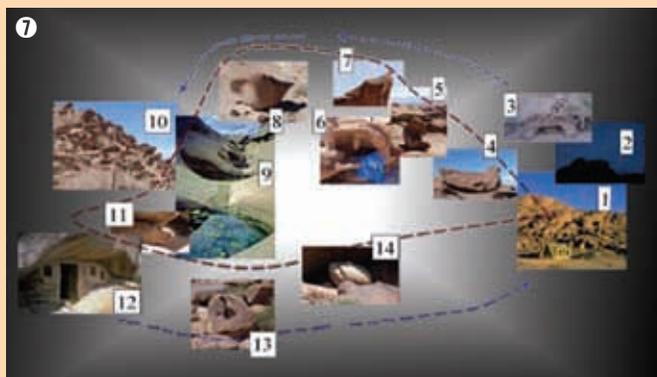
**대표적 지역 브랜드** 고비알타이아이막의 비게

르숨은 비타민나무열매(Hippophae) 와인, 기름, 샴페인으로 유명하며, 1981년 몽골과 구 소련의 공동우주비행 시에는 비행사의 우주식품으로 비타민나무열매로 만든 식품을 보내기도 했다. '비게르' 브랜드는 몽골 서부지역 박람회에서도 금, 은메달을 비롯, 그랑프리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현재 몽골의 국가대표 우수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꼭 보세요!**

**예찌 하이르항 산** - 해발 2,277m의 '예찌 하이르항' 산은 고비알타이 아이막의 척트숨에 위치해 있다. 이 산은 비둘기바위, 극장바위, 탁자바위 등 퇴적작용으로 생성된 기암기석과 산염소와 표범, 스라소니, 늑대의 서식지로 유명하다.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가장 자극하는 바위로는 9개의 거대한 구멍으로 이루어진 '9개 구멍 바위'가 있다. '9개 구멍 바위'의 평균 너비는 2~3m이며 40~50cm의 돌 문턱(벽)으로 연결되어 있다. 가뭄이 있는 해에도 항상 물이 고여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밍 아고이 동굴** - 승려가 명상을 하기 위해 화강암 바위를 깎아 만든 동굴에 살았다고 해서 '라밍 아고이,' 즉 승려의 동굴이라고 불린다. 동굴 안에는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으로 돌을 쌓아 만든 침대 2개가 발견되었다.



**예찌 하이르항 산의 관광코스**

- 1. 관광객들의 숙소
- 2. 스탈린 머리바위
- 3. 탁자바위
- 4. 비둘기바위
- 5. 새끼곰 바위
- 6. 목젓바위
- 7. 코끼리바위
- 8. 잉곳바위
- 9. 9개의 구멍바위
- 10. 극장좌석 바위
- 11. 남근바위
- 12. 승려의 동굴
- 13. 키스바위
- 14. 엉덩이 바위

#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790-83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지곡동 601) 포항테크노파크 3층

T. 054-223-2311~20 F. +82-54-223-2309 E-mail [neargov@hotmail.co.kr](mailto:neargov@hotmail.co.kr) Website [www.neargov.org](http://www.neargov.org)